

멕시코 8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예상에 부합



Economist/신용국경제 강현구
02-6114-2949 hg.kang@kbf.com
RA 김신혜
02-6114-2925 chloe.kim@kbf.com

- ✓ 8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0.6%로 3개월 연속 감소세
- ✓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산업의 호조 지속
- ✓ 향후 지진피해 복구와 관련된 산업 동향에 주목할 필요

▶ 전월대비 +0.3%로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12일 발표된 멕시코 8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재차 증가로 전환되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0.6%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같은 기간 각각 0.5%, 0.3% 늘어나며 산업생산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던 유틸리티가 -0.5%로 부진했으며, 광업은 -2.3%로 감소세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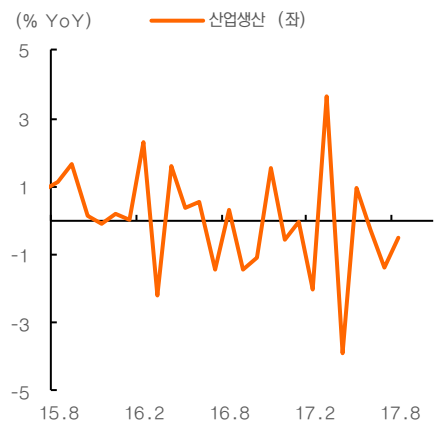
▶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산업의 호조 지속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광업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10.8%로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물 생산은 0.9% 늘어나며 증가세로 재차 전환되었으며, 이는 광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유틸리티 분야는 가스 및 수도가 1.2% 늘어났으며, 전력생산은 -0.8%로 감소세가 점차 축소되었다. 건설은 건축과 토목이 각각 -2.5%, -2.4%를 기록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제조업은 석유제품과 직물제품이 각각 -15.3%, -12.1%로 부진했으나, 기계제품과 자동차 등 수송장비 생산이 각각 14.4%, 9.3% 늘어나며 전체 제조업 증가를 주도했다.

▶ 향후 지진피해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동향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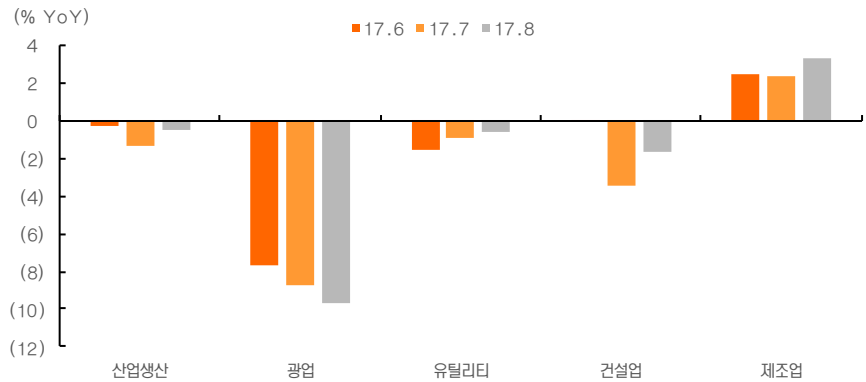
멕시코 8월 산업생산은 예상에 부합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9월에 연이은 강진에 따른 산업의 피해 등에 따라 9월 산업생산은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조업 시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부진을 지속했던 건설산업이 피해복구 과정에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분기 산업생산의 개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도 태풍의 피해 복구 과정에서 4분기에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4분기 멕시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멕시코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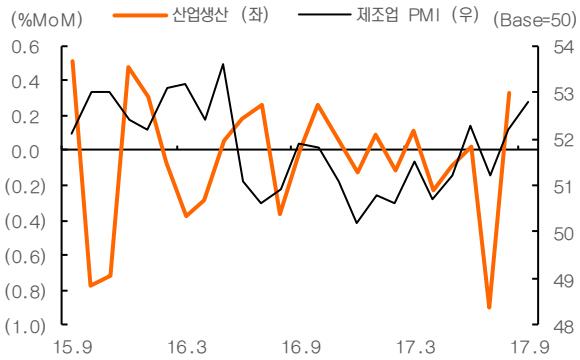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1. 산업생산,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부진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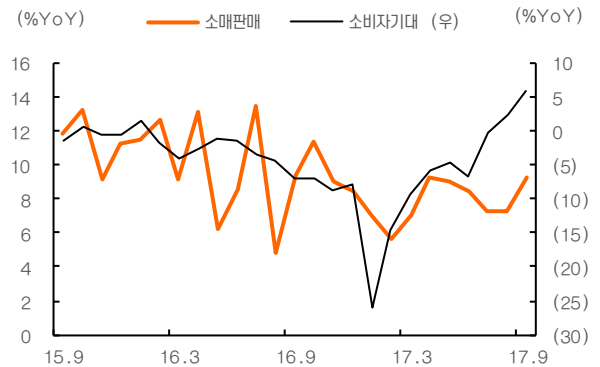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2. 9월 제조업 PMI, 52.8로 상승세 지속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3. 소매판매, NAFTA 재협상 우려 둔화로 심리지표 회복세



자료: Datastream, KB증권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